

2030에게 듣는 5·18과 광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1980년 광주의 봄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광주 밖'의 시선으로 질문을 던진 책 '요즘 광주 생각-광주를 이야기하는 10가지 시선'은 광주와 5·18에 대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지나' 베를린 역사학도

제가 유학하면서 느낀건데 5·18은 세계에서 짝을 못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 베를린과 역사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5월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사실들이 계속해서 더 공식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글전' 서울살이 7년차 광주 청년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기록관 같은 곳에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 봤던 것들과 미디어에서 본 5·18 콘텐츠를 때문인지 공포감이 있었어요. 광주가 고향인 사람으로 5·18이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이미지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해요.

'준영' 서울에서 활동중인 도시연구가

역사와 도시를 결부시킬 때 그 역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18 자체만 놓고 보면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이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으나 오늘날 광주가 5월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 의경으로 근무중인 맥내아들

광주하면 '용감한 도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눈앞에 총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건 신념 말고는 없어요.

“정형화된 5·18 아닌, 젊은세대 다양한 목소리 담으려 했죠”

전현직 광고회사 직원인 서울 토박이 오지윤·권혜상 작가는 '광주에 연고는 1도 없는' 이들이다. 두 사람은 최근 '광주 밖'의 시선으로 질문을 던진 책 '요즘 광주 생각'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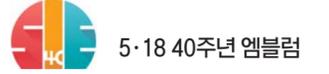
'요즘 광주 생각'을 펴낸 오지윤(오른쪽), 권혜상 작가 일러스트.



다르게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초기에는 서울에 사는 광주 출신만 소수였지만 소개를 통해 광주 초등학교 교사 서희·민지씨를 인터뷰하고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서울 토박이' 오지윤·권혜상 작가 '요즘 광주 생각' 펴내 지역·직업·출신지 다른 12명 인터뷰 "저에게도 편견, 기대하는 답변이 있었던 듯해요. 광주와 5·18은 새로운 브랜딩이 필요하리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문제가 됐죠."

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될까 걱정됐다"며 "또 인터뷰만으로 책을 쓴다고 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기도 했다.



차별 없는 5월 나눔공동체 주먹밥 행사에 태양 덧붙여

1980년 5월, 광주는 하나의 대동세상이었다. 광주는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자청하며, 단 한 건의 범죄도 없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켰다.

본 사 인사 박중배 : 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 부장 (5월 18일자)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공사 안내 호천역 앞 행암교차로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기간: 2020. 6. 1.~2021. 12. 3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력,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행안내 8612 3177 6월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6일(토) 서울 도봉산.사패산.여성봉.오봉.포대능선. 봉선동 롯데마트앞 05:1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광주일보